2020 역사교실 학급운영사례 모음

경기 역사교육 실천연구회

과거와 소통하고 현재를 성찰하며 따뜻한 세상을 꿈꾸는

나와 1년 간 함께 할 아이들을 위한,

학급 운영 사례 모음집

과거와 소통하고 현재를 성찰하며 따뜻한 세상을 꿈꾸는, 역사 선생님 :)	
학 교	
이 름	

들어가기 전

치열한 임용 시험에 합격한 신규 교사 A! 그러나 합격의 기쁨도 잠시,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학급 행사는 어떤 게 좋을지, 3월이 다가올수록 첫 담임에 대한 부담감이 커져만 간다.

N년차 경력 교사 B! 몇 년을 해도 학급 운영은 늘 고민이다. 다른 선생님들은 어떤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지, 상담은 어떻게 하는지, 문제가 생겼을 땐 어떻게 해결하는지 궁금하다.

고민하는 교사 A, B를 위해 경기역사교육실천연구회 선생님들이 나섰다.
개!봉!박!두!

목 차

01	역사교실 선생님들의 **학급 운영 철학**	02
02	**3월이 되기 전에 준비**해야할 것은?	05
03	**학교 • 학급 행사 준비**하기	11
04	**학생 • 학부모 상담**하기	18
05	학급 운영 중 겪을 수 있는 **문제 상황 & 대처 방안은?**	24
06	역사교실 선생님들의 **학급 운영 꿀팁**	28

Q1.

교사 B 선생님께서는 **학급 생활을 통해 아이들이 무엇을 배웠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시나요? 선생님의 학급 운영 철학을 듣고 싶습니다.

♡ 역사교실 선생님들의 답변 ♡

내 용
• 협동과 일체감, 자존감 등이 함양되었으면 합니다.
• 자기 주관이 있되,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배려해야 하는 이유를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 1년 동안 나와 같이 생활하는 아이들이 서로 다름을 이해하고, 약자를 배려하고 함께 살아가는 모습을 배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것. • 기본적인 예의와 눈치를 갖춘 사람이 되는 것. • 부족한 면이 있지만 이를 극복하고자 노력하는 사람이 되는 것. (자아성찰)
• 머리는 차갑고 가슴은 뜨거운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역사적 사실을 가지고 오늘날에 유사한 현상에 대해 자신의 관점과 이에 대한 생각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람.
• 따뜻한 사람. 공감할 줄 알고 배려할 줄 아는 사람.
• 학업이 부족하더라도 인성이 바르고 긍정에너지가 넘치는 사람이 되었으면 합니다.
• 나를 사랑하고, 너를 사랑하는 사람. • 선한 영향력을 나눠줄 수 있는 사람.
• 타인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입니다. 중학교에서 근무해서 그런지 학생들이 친구들을 이해하기 보다는 자기 입장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타인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합니다.
• '같이'의 가치를 아는 학생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학업에 대한 고민, 진로에 대한 고민 역시 함께 해야 할 것들입니다. 하지만 학생들이 살아가야 할 사회 속에서 서로 배려하고 공동체로서 지켜야할 것들에 대한 중요성을 인지하고 배워가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자신이 자유로운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표현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서로를 비난하기보다는 부족한 것을 채워주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 남을 배려할 줄 알고 상식이 통하는 사람
• 송충이는 없다
• 내면에 사랑이 가득한 사람. • 배려하고 존중하면서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사람.
• 거창한 말보다는 아이들이 항상 진실된 사람으로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저 또한 학급 경영을 하면서 눈에 보이는 멋진 말, 거창한 학급 이벤트, 대량의 물량 공세보다는 진정성 있는 마음으로 아이들에게 다가갈 때 비로소 마음이 통한다는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아이들이 항상 진실 되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자기 자신을 이해하고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할 줄 아는 사람으로 성장하였으면 좋겠습니다.
• 학급의 일원이라는 소속감과 다른 사람을 위하는 따뜻한 배려심을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 1년 동안 쉴 새 없이 많은 이벤트나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아이들에게 다양한 기회와 경험을 제공합니다. 먹어본 사람이 맛있는 것도 먹을 줄 안다고 이런 저런 경험을 겪은 아이들이 어딜 가도 지난 경험을 되돌아보며 더 잘한다고 믿습니다. '언제 어딘가에서 써먹을 날이 오겠지.' 라는 마음으로 아이들과 이런 저런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그러다 보면 자신도 모르는 재주를 발견하거나 흥미를 발견할 수도 있을 것이구요. 학교라는 공간이 꼭 교과 수업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다양한 교육의 산실이기 때문에 어떤 것이든 무언가를 통해서 배워가길 바랍니다.
• 타인을 배려하는 방법 • 다른 사람을 고려할 줄 아는 사람
•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 주변을 배려하는 따뜻함을 배우고 소속감과 안정감도 느꼈으면 합니다.^^
• 서로가 평등하고 귀하다는 것 • 기본적인 매너 • 나는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유능감 • 갈등과 다툼을 평화적으로 해결 하는 법
• 학급 친구들과 공동체 의식을 형성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친구의 좋은 일을 함께 기뻐하고, 친구의 불상사에 함께 슬퍼할 수 있는 학생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기본적인 규칙들을 준수하면서도 규칙의 울타리 안에서 창의적으로 활발하게 학교생활을 하였으면 합니다. 그래서 1년이 지났을 때 저희 학급 아이들이 다른 사람의 마음에 공감하고, 타인을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며, 규칙을 잘 지키는 학생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 상식적인 언행으로 스스로와 남을 존중하는 사람
• 남과 함께 조화롭게 살아가는 방법을 알아가기 • 편견을 내려놓고 경청하는 사람
• 자율적으로 생활하는 사람
• 서로 사랑하며 더불어 살아가는 교실 상대방을 존중하며 배려하고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면서 더불어 살아가는 학급 공동체 만들기. • 자율과 책임이 함께하는 민주적인 교실 학생들의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하되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의식 키우기. • 자기주도적인 삶과 학습을 실천하는 교실 자신의 삶에 대한 주인의식을 키우고, 자기주도적인 학습 능력 강화하기. 위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더라도 삶은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것이며, 내 삶의 주인은 '나'라는 것을 확실하게 인식하여 어떻게 살아야할지를 고민하는 학생이 되었으면 합니다.

Q2.

교사 A 이제 곧 새 학기 시작인데,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ㅠㅠ **3월이 되기 전에 준비해야할 것들**이 있을까요?

♡ 역사교실 선생님들의 답변 ♡

내 용
• 1인1역, 학급규칙 등이 있으면 좋을 듯.
• 명렬표, 청소역할표, 가정통신문 수합표, 첫날 소식지(학교 및 학급약속 안내 등이 포함), 성향 파악 및 상담 시 참고를 위한 자료(문장완성검사 등등), 1인1역할
• 학급 OT : 지난해에 자세하게 적어서 주었는데 어차피 기억 못하더라구요ㅠㅠ 올해는 내용을 줄이더라도 임팩트 있게 진행하고 싶습니다. • 회장선거 : 어떤 아이를 회장으로 뽑아야하고, 우리 반이 지향해야 할 가치가 무엇인지에 대해 고민하고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 학급조직도, 1인1역 등 각종 양식 • 담임 첫 시간 OT : 레크리에이션 위주로 구성하여 '올해 우리 반 재밌겠다.' 라는 기대감을 높이고자 합니다. • 학급규칙, 회장선거 : 관련 내용은 학생자치 담당 선생님이 안내해주실겁니다. 똘똘한 학급회장이 뽑혀야 담임선생님이 편한데 안타깝게도 1학기 회장은 서로 정보가 없는 상태인지라 인기투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태를 막기 위해 입후보 절차를 아주 까다롭게 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공약서 써오면 기본적으로 세 가지 질문을 합니다. 첫째, 학급 친구들의 의견을 들어봤는가? 둘째, 이 공약을 실천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네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셋째, 과연 이 공약이 실현 가능하다고 생각하는가? 입니다. 추가적으로 '친구들 간에 갈등이 생기면 어떻게 할 것인가?', '선생님들과 우리 반 학생들 간에 갈등이 생기면 회장으로서 어떻게 처신할 것인가?' 등의 질문도 좋습니다. 그냥 '재미로' 선거에 나오는 학생들은 이 과정에서 대체로 출마를 포기합니다.
• 번호대로 좌석표 미리 만들어 이름외우기, 사물함 책걸상 이름표 어피치 덕후스럽게 도배하기, 구혜영 성격 미리 사용설명서로 구체적으로 알리기
• 1인1역, 학급규칙
• 학급 OT 1. 나눠줄 프린트물 준비 ① 샘이 생각하는 올해 우리 반 운영목표 : 작년엔 크게는 함께하는 공동체였고 작게는 패드립 안하기가 목표여서 집중적으로 얘기 나누고 회의하고 단속?했어요. 올해는 자기 물건 챙기기, 자기자리 깨끗하게 하기 하려구요. ② 샘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 소소한 규칙들-지각하면 뭐하겠다, 병지각은 몇 시전에 연락하는 것만 인정하겠다 등등 ③ 주소, 전화번호 등 받을 구글이나 네이버폼 만들어 놓기. ④ 학생들이 작성할 기초자료 준비 2. OT시간에 할 활동 준비 ① 자기소개-페이스맵 ② 관계조직도 자료 ③ 학급 규칙 만들기 : 하자4가지&하지말자4가지 모둠별로 먼저 만들고 후에 전체로)
• 1인1역할 리스트 : 학급인원수에 맞게 역할을 쪼개서 정하고, 기간 내에 원하는 역할을 맡을 수 있도록 권유 • 학급규칙 : 가안은 담임이 정하고, 3월 학급회의시간을 통해 자율적으로 학생들이 정하는 게 좋을 듯함. • 학급 임원선거 : 입후보를 신청 받고(신청서 양식 있으면 좋음), 선거 홍보활동 기간을 정한 후 투표하기(온라인 전자투표 추천함-시간절약, 교컴프로그램 활용) • 첫날 학급 OT 소개자료 제작 : 담임 소개, 학급 운영방향 등 • 간단한 아이스브레이킹 자료 준비하기 • 청소구역 배정표

개인적으로 2월이 바빠야 3월이 편하다는 생각인지라 이것저것 많이 준비해두는 편입니다. (물론 그래도 3월은 바쁩니다. ㅠㅠㅠ) • 학급 OT : 학급 소개 자료(담임 소개, 기본적인 학급 규칙 안내, 학급 운영 계획, 새 학기 안내 등 학생에게 필요한 모든 내용)를 만들어 간단한 간식과 함께 첫 날 아이들 책상 위에 올려둡니다. • 담임 소개 PPT : 첫 날 학급 자치 시간에 활용합니다. • 학급조직도 or 1인 1역 • 학급 규칙 : 지각생 처리 방법 등 (저는 '전제정치'를 추구하기에 큰 틀은 제가 직접 정하고, 3월 학급 시간에 아이들과 상의하여 조정하는 스타일입니다.^^) • 학생 자기소개서 : 학생 기초 신상 파악용. 첫 날 책상 위에 학급 OT자료와 함께 올려둡니다. (전원 작성해야 종례한다고 공지.^^) • 네이버 학생 설문조사 폼 + QR 코드 : 전화 번호 수집할 때 유용함. • 임시 자리표 및 임시 청소 구역 • 학급 SNS(네이버 밴드) 개설 • 학부모님께 드리는 편지
• 학급규칙을 정할 때, 학생들이 토의를 통해 정하고 상벌을 학생들과 함께 정하여 학생들이 스스로 지키도록 하고, 지속적으로 안 지키는 학생에게는 따로 각서를 받아서 규칙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오고 있습니다.
• 학급 OT(교사에 대한 소개에 대한 내용- 진진가 등), 학급사용설명서(한쪽 정도로 간단한 규칙?), 부모님께 드리는 가정통신문(여유가 되면 영상편지도 ㅎㅎ), 책상 및 사물함 이름표, 학급 게시판 정리, 칠판편지(개학 당일), 소통일기 준비 등. 쓰고 보니 할 게 너무 많네요 ㅋㅋㅋ 줄여야겠어요...
• 학급회의 하는 방법을 생각하면 좋습니다. 학생과 마찬가지로 교사도 민주적인 공동체에서 생활해 본 경험이 적습니다. 따라서 여러 사람의 의견을 모으는 방법, 다른 사람의 의견을 존중하는 자세, 합리적인 해결책을 찾아나가는 길 등을 생각해봐야 합니다.
• 1인1역, 학급규칙, 학급OT(첫날 해야 할 멘트 등..), 임시 자리배치표
• 청소분담표, 1인 1역, 학급규칙
• 네임 스티커, 학급 운영 철학, 학급 오리엔테이션, 학급 운영 계획(월별 혹은 이벤트 등), 학부모 총회, 학급 자치에 관한 모든 것
• 사전 교실 방문 : 청소와 교실 맞이 칠판 글, 자리배치도 저는 개학식 전에 배정받은 학급에 미리 가서 학급을 조금 청소해놓고 정돈을 해놓는 편입니다. 아이들이 설레는 마음으로 학급에 처음 들어왔을 때 쾌적한 느낌을 받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시작한 건데 저도 일 년을 상큼하게 시작하는 느낌을 받아서 좋더라구요. 또 첫날 첫 순간부터 담임이 교실에 없어도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을 주기 위해 교실 맞이 칠판 글을 써놓았는데 아이들이 담임에 대한 첫 이미지와 기대가 생겨서인지 칠판 글을 의외로 참 좋아하더라구요. 또 학생들이 학급에 들어왔을 때 우왕좌왕하지 않도록 자리배치도를 비치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 담임 소개 프리젠테이션 제가 말을 매끄럽게 잘하는 편이 되질 못해서 담임 소개, 학급 경영 철학과 급훈, 교칙, 연간 학급 이벤트 등을 소개하는 PPT를 준비해놓고 담임과의 첫 소통 시간을 진행하니 좀 더 편하고 어색한 분위기가 풀리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 시간표, 사물함 시간표, 게시판, 알림판 등등 학급부착물 준비 • 청소구역표, 1인1역할 : 빠르게 설정해놓을수록 1년을 좀 더 편하게 보낼 수 있고 후에 생기부 행동발달 상의 근거가 됩니다.
• 학급OT : 개학하기 이전에 '첫 날 어떻게 만남을 가질까.' 가 가장 신경 쓰이고 고민됩니다. 작년에 OT 자료를 마련하고 학급 학생들이 오기 전에 책상 위에 올려두었는데 나쁘지 않았습니다. 올해도 만들 예정입니다. • 1인 1역 : 작년의 경험을 토대로 1인 1역의 목록을 수정할 계획입니다.
• 학급임원과 1인 1역은 학교에서 선출하라는 최대 기한까지 버팁니다. 아이들에 대한 파악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한 학기 농사를 짓는 일이기 때문에 충분히 아이들을 관찰해서 최대한 원활한 학급을 위해 노력합니다. 그래서 저는 보통 3주차에 뽑습니다. 또한 학급임원선거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엄중한 분위기 속에서 민주주의 절차를 최대한 따르며 선거합니다. • 학급 OT와 학부모님들께 편지를 꼭 씁니다. OT는 나라는 사람과 우리 반이라는 가치관을 최대한 심어주는 시간이기 때문에 정성스레 준비를 합니다. 또 학부모님들께는 마찬가지로 학급운영방향 등에 대해서 편지를 보냅니다. 첫날부터 이런 정성을 쏟아 놓는 이유는 내가 이만큼 신경 쓰는 사람이라는 것을 초반에 강조해두면 학부모님들도 학교를 멀리하게 되는 점 때문입니다.
• 학급규칙, 회장선거, 학급OT
• 학급OT, 학급 규칙 함께 정할 방법, 1년간 함께 해볼 만한 프로젝트(학급일기, 단편 읽고 나누기, 시 패러디 등) 활동 구상
• 학급 규칙 절대로 어겨서는 안 되는 규칙 3가지 당부 ex) 수업방해, 성적인 행동, 타인을 무시하는 행동 • 1인 1역 쓸데없는 1인 1역 말고 업무의 경중에 따른 1인 1역 편성, 1인 1역 할게 그닥 없으면 순서를 만들어 1주 단위로 재배치 ex) 8개의 1인 1역 인데 학급 학생이 24명일 경우 -> 3조로 나눠서 8개 1인 1역 부여하고 한주마다 바뀜

• 나의 학급운영 철학 또는 원하는 학급 상 준비하여 학생들에게 설명

• 칭찬 스티커, 학급 수업태도표를 만들어 1~5점 까지 수업시간에 체크 받게 함. 개인의 점수 체크가 아니라 학급 전체 분위기를 매 교시마다 회장 등을 통해 체크 받게 함.

-> 종례시간 평점을 내서 4점 이상인 경우 스티커를 붙여줌.

-> 중간고사 직전까지 이를 실시하고 중간고사 후에 일일단위 평점을 다 더해 평균을 구했을 때 4점 이상일 경우 단합대회를 하겠다고 약속.

ex) 우리 학급은 1년에 총 4번의 단합대회를 하게 되었음. 수업태도도 상당히 좋은 반이되어 공개수업 등에 항상 동원되는 반이 됐음.

학급 조직도 안에서 회장, 부회장이 맡았으면 하는 역할들과 각 부서 부장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을 정리합니다.

• 학급의 규칙은 간단하게 3가지 정도로 설정해서 매일매일 아이들에게 주지를 시키고 다함께 지킬 수 있도록 합니다.

• 회장 선거의 경우는 학사력을 참고하여 자체적인 선거 일정을 세우고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선거를 치룰 수 있도록 준비를 합니다.

• 학급 오리엔테이션을 위한 자료를 준비하고 개학식 날 학생들에게 배부합니다.

• 학급 청소도구함에 있는 용품들에 몇 학년, 몇 반인지 매직으로 크게 써놓습니다.

• 학생들의 책상과 의자, 사물함, 신발장에 번호표를 부착합니다.

• 배정된 학생들의 생일을 확인하여 학사력에 표시하고 학급 게시판에 부착합니다.

• 학급 게시판에 학생들의 학교생활 과정에서 필요한 각종 양식의 문서들을 게시합니다.

• 학생들의 정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림을 준비하기도 합니다.

• 학급 게시판용 시간표를 제작합니다.

• 학급규칙이나 아이스브레이킹 활동을 준비해두면 편하다. 특히 학급규칙 같은 경우는 담임의 스타일과 그 해 학급의 컨셉이 반영되는 것이므로 고심해서 정해야 한다. 누가 보아도 인정하며 합리적이고, 길게 보았을 때 학급 전체를 위한 것으로 여겨져야 한다. 고로 학급규칙은 학급 급훈부터 시작되어 일종의 도덕적인 대전제를 세우는 것과 같다. 또한 이는 수업규칙과도 일맥상통한다. 어쨌든 가장 중요한 첫 단계는 교사 스스로의 깊은 고찰이다. 이렇게 탄생한 교사의 철학은 어떤 상황에서나 융통성 있게 발휘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어렵고 섬세한 정신적인 작업이다.

• 학급 규칙, 회장선거 준비

• 첫날 자기소개 게임하기 : 각자 소개파일 작성한 뒤 각 항목별로 친구들 몇 명에게 묻고 써오는 활동

• 학부모님께 쓰는 편지

• 학급 특색활동

1. 시험문제 you출 프로젝트 : 우리가 만드는 시험요약집, 예상문제집
2. ?-! 프로젝트 : 스스로 질문하고 답하기

3. 학급문고 : 각자 한권씩 가지고 오기
• 학습 운영의 방향 및 목표 설정 모든 일이 그러하듯 방향과 목표가 있어야 구체적인 계획이 세워집니다. 자신만의 학급운영 방향과 목표를 치열하게 고민해서 결정하면 나머지 구체적인 계획은 다른 선생님들의 활동을 참고하여 자신의 것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 학생과 학부모에게 강렬한 첫인상 심어주기 교사 소개 동영상 또는 학급 신문(개학신문)등을 준비하여 선생님의 학급 운영 방향과 목표를 함께 공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학생 상담 자료 준비하기 학교마다 학년부에서 일괄적으로 제공하는 학생 상담을 위한 기초 설문 자료가 있을 수 있지만, 선생님의 생각으로 작성된 양식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학생에 대한 기본 사항을 파악하기 위한 학생용 설문조사와 학부모가 교사에게, 자식에게 바라는 바를 파악하기 위한 학부모용을 따로 작성하여 개학 첫날 학생들에게 나눠줍니다. 이 기초 설문조사 자료는 일 년 동안 학생 상담 자료로 요긴하게 활용 할 수 있습니다. • 학급 신문 또는 칠판 편지 일일 학습 신문 또는 매주 학급 신문 또는 한달 학급 신문 또는 학기당 학급 신문을 제작합니다. 미리 계획을 세우시고 제작 시기, 횟수, 주체 등등을 고민해놓습니다. 교사가 주도적으로 할지 학생들에게(언론편집부) 맡길지는 판단하시면 됩니다. 교사의 칠판 편지도 날마다 쓸지, 일주일에 한번, 특별한 날 등 학생과 소통 방법으로 매우 유용하니 개학 전에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Q3.

교사 A 아이들과 함께 여러 가지를 해보고 싶어요.ㅎㅎ 선생님들께서 경험하신 **학교·학급 행사들을 소개**해주실 수 있을까요? 고민이나 느끼신 점도 듣고 싶어요.

♡ 역사교실 선생님들의 답변 ♡

내 용
• 생일파티는 3월에 미리 5000원 정도의 선물을 걷고 번호를 붙여 각 월 생일자가 뽑는 형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각 달 마지막 날에 담임이 준비한 까까와 분위기 업을 위한 엘이디 전구 + 선물이 준비됩니다. 생일송 불러주면. 끄읏~!

• 체육대회는 '1등 못하면 집 못 간다.' 하니까 1등했고요^^;;(2년 연속 우리 반이 1등ㅋㅋㅋ) • 단합대회는 가사실 빌려서 모둠별 음식만들기 하고 교실 와서 게임.(그때 그때 달라요)하거나, 엘이디 키고 교실 바닥에 앉아서 이미지카드 선택하면서 대화의 시간 가졌어요. 저는 12월에 마무리로 단합대회를 해서 1년 마무리하는 카드를 선택하도록 했습니다. • 1학년 담임일 때는 자유학기라서 시에서 주최하는 행사에 무조건 신청해서 갔습니다. (3.1운동 기념관 탐방 및 답사지 방문 등) • 3학년 담임일 때는(작년) 4.19기념관에서 버스 대절해주는 행사 신청해서 다녀왔었습니다. 공문을 관심 있게 보고 다른 반보다 우리 반에서 특별히 무언가를 하면 협동심이 함양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다른 반 선생님들께 같이 가자고 이야기한 후 진행했습니다.)
• 학급비를 의미 있고+번거롭지 않게 쓸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궁금합니다.
• 학교행사(축제)때 어떤 테마부스를 할지가 굉장히 고민이 됩니다. 매번 아이들은 먹거리와 귀신의 집이라는 아이디어로만 수렴되는데 참신한 아이디어가 있다면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 영어합창대회 준비하면서 연습을 주도하는 여학생과 이에 반하는 일부 남학생 사이의 갈등이 있었는데 결국 갈등을 제대로 해결하지 못했습니다.ㅠㅠ 이런 경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 희망자에 한해 집단상담 : 2학기에는 개별상담을 진행하지 못하고 희망자에 한해 집단상담을 진행했습니다. 방과후에 약 1시간 정도 카드게임을 통해 진행하였으며, 절반 정도의 학생들이 참여했습니다. 참여한 학생들의 만족도는 높은 편이었습니다.(간식을 제가 샀거든요...) 다음에 담임을 맡게 되면 모든 학생들과 집단상담 해보고 싶어요~
• 생일은 생일인 학생 당일에 생축상을 줬습니다. 단합 대회는 '구식당'인데, 이건 뭐 너무 많이 말해서 부끄럽네요.
• 수업 시 학생들과 원활한 의사소통
• 단합대회는 아이들이 계획서를 만들어 저에게 제출하면 하였습니다. 제가 준비하면 너무 힘들어서 아예 처음부터 '너희들이 회의를 거쳐 어떤 식으로 운영할지 자세히 계획을 세워서 제출하면 검토 후 하겠다. 말만 단합하자 하면 안하겠다.' 라고 못박았어요. 그랬더니 아이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단합이 되더라구요. • 생일파티는 매달 학급비로 운영. 학기 말에 생일파티해준걸 가장 좋았다 라고 하는 학생들이 많았습니다. 별건 없고 학기 초에 장식품?(가랜드, 고깔 모자 등) 사서 1년 동안 쓰고, 오예스, 요구르트 사서 생일 축하 노래 불러주고(노래도 그냥 부르면 잘 안 불려서 유튜브에서 핑크퐁 생일축하 노래 다운 받아서 틀어줬어요.) 생일자는 폴라로이드 사진 찍어서 한 장씩 줬어요.
• 학급행사 : 단합대회 진행 시 학생들의 자율의사에 따라 투표 후 진행, 라면 만들기 또는 요리경연대회 형식으로 모둠별로 요리재료를 준비하여 경연하면 좋아했습니다.^^

• 학급의 여러 행사들은 학생들의 의지와 역량에 따라 많이 좌우되니, 학급 분위기를 꼭 파악하고 추진하세요.
• 작년 체육대회에서 우리 반이 전 종목 꼴지를 하고, 마지막 이었던 이어달리기까지 시작하자마자 넘어져서 애들이 울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따로 학급시간을 마련해 학급 운동회를 준비해 교실에서 간단한 게임 및 다과회를 진행하여 운동회의 아쉬움을 달랬는데 기억이 납니다.
• 벚꽃 사진전, 굽네 이벤트 당첨, 생일준비위원회, 자리배치위원회, 중간고사 부모님 응원 메세지 전달식, 100일 이벤트 등? 이벤트가 다소 1학기에 치중되어 있는 편인데요, '1학기에 세팅을 잘 해두어야 2학기에도 버틸 수 있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ㅋㅋㅋ
• 학급 행사는 특별히 기획하지 않습니다. 다만 학급회의에서 자연스럽게 안건이 나오고 역할 분담이 평화적으로 이루어지면 학급 행사를 추진합니다.
• 생일파티는 2달에 한번 진행했습니다. 생일축하준비위원을 1인1역으로 두고 정해진 날에 그 친구들이 준비합니다. 첫 생파를 하기 전 천 원 이상 삼천 원 이하의 선물을 받아두고 제비뽑기를 해서 가져갔습니다. 하지만 제 역량이 부족하여 전 무슨 행사를 해도 재미없게 되어버리더라구요.ㅎㅎ 단합대회도 하긴 했으나 후회만 남아 공유하기가 어렵겠습니다.ㅠㅠㅜㅠㅜ 다른 반 사례를 보니 아이들이 알아서 게임을 준비하게 하는 게 더 좋아보였습니다 ㅎㅎ 그게 아이들도 더 재미있어 하는 것 같았고요!
• 연말 학급댄스경연대회에 참가하면서 한명의 이탈자 없이 공동체의식을 발휘하는 아이들을 본 기억
• 생일파티, 단합대회(삼겹살파티, 학급현장체험학습), 꿈의 타임캡슐, 자리배치위원, 계절 사진, 학급 포토앨범 제작, 진학지도(중3), 학급 반장 선거, 학급 내 독서동아리 등
• 생일파티 2달에 한번 개최, 학기 초 2천원~5천원 상당의 생일 선물 준비(학급 회의로 결정) - 파티플래너 : 생일선물 걷고 포장, 번호 붙이기, 생일파티 전 교실 꾸미기, 몽쉘 세팅, 음향 효과 준비, 생일 선물 뽑기 및 증정식 진행, 롤링페이퍼 전달 - 담임 : 미리 롤링페이퍼 준비(첫인상+장점+하고 싶은 말 쓰게 하기), 몽쉘 준비, 블루투스 스피커 • 계절별 학급단체사진 봄, 여름, 가을, 겨울 같은 자리 같은 포즈로 학급 단체사진을 찍어서 게시판에 부착. 그 외 여러 행사가 있을 때마다 게시판에 사진 전시 • 칭찬게시판- 칭찬도장, 복권 제가 한 해 동안 가장 성공적으로 기획된 학급행사입니다. 친구나 선생님을 도와 착한 일을 한 경우, 교과 선생님께 칭찬쪽지(학교에서운영)를 받은 경우, 그밖에 칭찬받을 만한 일을 한 경우에 학급에 부착된 칭찬 게시판에 칭찬도장을 찍어줍니다. 칭찬도장 5개가 모일 경우 복권 1장을 교환해줍니다.(복권은

따로 구매) 복권에는 간식교환권, 자리교환권, 청소 면제권, 점심시간 휴대폰 사용권, 삼색 볼펜 교환권, 점심시간 컵라면교환권, 아이스크림 교환권 등이 적혀 있습니다. 복권 매니아 친구들이 학급에 꼭 다섯 명은 있습니다. 늘 칭찬 받기위해 심부름과 착한 행동을 하고자 나서고 청소시간에 제가 올 때까지 남아서 다른 친구들 청소를 도와주는 등 복권을 받기위해 몸부림을 치기 때문에 참 수월하게 학급경영을 한 경험들이 많습니다.ㅋㅋ

• 월간 학급뉴스

월말 종례시간에 그 달의 학급의 핫뉴스들을 담은 학급신문을 나누어줍니다. 의미 있는 시간, 아이들의 웃긴 사진, 센스 있는 기사 등을 담습니다. 원래 처음 세 달만 제가 하고 그 다음부터는 선발한 아이들에게 맡기고자 했는데 아이들이 글 쓰는 걸 어려워해서 이건 그냥 제가 전담했습니다. 아이들이 어느 순간부터는 월말 종례 시간을 많이 기다리더라구요. 생각보다 반응이 좋았습니다.

• 학급문집

학기 말에 그동안의 학급 행사와 사진 등을 편집한 학급문집을 엮어내었습니다. 발간과 편집을 하는 동안 죽음의 일주일 시간을 보냈지만 막상 문집이 나오니까 일 년 중 가장 뿌듯하고 보람된 순간이었습니다. 내용은 담임 편지, 월간 학급뉴스, 학급 사진 모음, 자기소개서, 미래계획서, 학부모님 편지, 학생들 편지, 별별 설문조사, 나의 뇌구조, 롤링페이퍼, 각종 대회 작품 등을 담아서 엮어내었습니다. 선생님 혼자 다 하지 마시고 꼭 똘똘한 학생들 10명 정도를 뽑아서 편집과 타이핑을 시키세요. 혼자하시면 너무 힘듭니다. ㅠㅠ

• 학급 스터디그룹

희망자에 한해서 8명 정도 학급스터디 그룹을 편성하여 같은 문제집(수학)을 사서 일주일에 한번 방과후 한 시간씩 서로 숙제를 점검하고 모르는 것을 물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가장 훌륭한 스승은 또래 친구라는 말이 있듯이 서로 선의의 경쟁을 통해 성장하고 학습 의욕을 높여 긍정적으로 운영되었습니다.

• 학급단합대회 및 레크레이션

여름방학을 앞두고 학기말 수업시간이 여유로울 때 학급 단합대회를 운영하기 위한 학급자치회의를 개최했습니다. 공론 끝에 운동장 물총싸움, 팥빙수 만들어먹기, 학급 노래방 등의 이벤트가 뽑혀서 학급단합대회를 진행하였습니다. 본인들이 기획하고 진행해서인지 더 재밌어하고 좋은 추억을 만들더라구요. 그 외에도 학급 레크레이션으로 노래 맞추기, 줄줄이 말해요, 초성게임, 인물퀴즈 등등 TV 예능 프로그램에서 즐겨하는 게임들을 준비해서 진행하였습니다. 아이들이 얼굴이 시뻘게 질 때까지 적극적으로 참여하더라구요. 다른 걸 떠나서 아이들도 저도 참 많이 웃게 되어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 작년에 학급행사로 '한 달에 한 번 학급사진 찍기'를 진행하였습니다. 처음에는 낯설어하는 학생들이 나중에는 먼저 한 달의 마지막 날에는 학급 사진 안 찍냐고 먼저 물어보더라구요.^^ 좀 아쉬웠던 점은 출력해서 학급 게시판에 붙여 놓지 못한 점입니다. 올해는 좀 더 부지런하게 움직이겠습니다!

• 월별로 학급의 프로그램을 기획해서 운영합니다.

3월 1년 무사기원 고사, 화이트데이, 임원선거

4월 벚꽃사진 콘테스트

5월 선배들과 함께하는 진로토크콘서트

6월 100일 이벤트 7월 1학기 마무리 단합대회 8월 2학기 무사기원 고사 9월 수학여행 이벤트 10월 할로윈 데이 파티 11월 선배들과 함께하는 진로토크콘서트 12월 크리스마스 파티 1월 종업식 파티
• 체육대회 댄스
• 학급행사(단합대회) 아이들이 많이 원하고 있어서 꿈끼 예산을 사용해서, 품의 기안하고, 학부모님 통신문 동의 받고, 금요일 일과 후 4시~9시 반 강당 및 교실에서, 단체 게임(여왕피구 수건돌리기 등) 교실게임(담력 키우기, 전주듣고 노래 맞추기, 학급노래방 등) 등을 함. 만족도가 높았음.
• 단합대회 : 게임 및 식사 등 학생들 주도로 준비 • 생일파티 : 끝까지 제대로 챙겨줄 거 아니면 안하는 게 나을 수도 • 학급서클 : 자치회 시간 등 활용하여 서클 대형으로 앉아 게임 및 이야기
• 체육대회 같은 경우 식사를 도시락으로 맞춰서 학급 구성원 모두가 같은 식사를 할 수 있도록 합니다. • 축제의 경우 다함께 준비할 수 있도록 시간을 정해서 점심시간이나 방과후 혹은 아침시간에 함께 준비하였습니다. • 단합대회는 학기 당 1회 실시하였고, 프로그램 + 식사의 형식으로 준비하였습니다. 프로그램은 체육행사, 영화감상, 단체 게임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 생일파티는 월 1회 다함께 실시하는 것이 아이들에게 잘 와 닿지 않는 것 같아서 생일 당일에 아침 조회시간에 교사가 케익을 준비해 와서 다함께 축하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회장과 부회장에게 생일을 맞은 학생을 축하하는 글을 반톡에 이야기해 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당일 밤 12시 이후)
• 2달에 한 번씩 생일파티를 진행하는데 교사 사비를 들여 공책 첫 장에 편지를 쓰고 선물, 축제를 위한 반 댄스 연습, 체육시간에 깜짝 등장하여 같이 축구함(2골 넣음), 역사 수업시간에 공부하기 싫으니까 교사가 주도적으로 마피아게임, 시험시간 2주전부터 아침자습시간 실시 등등.
• 학급행사(팥빙수 만들기 또래 상담 등)를 학생들에게 맡겼는데 제가 혼자 고민하며 진행했을 때보다 좋았던 경험이 있었네요.ㅎㅎ 고등학생 정도면 학교생활의 노하우나 학급 경영의 센스가 제가 생각하는 것 이상이었어요.

• 학급 단합은 언제나 문화예술부에게.^^

• 합동 생일파티

학급에서 생일파티준비위원회(생준위)를 구성하여 이 학생들이 주체가 되어 매달 합동 생일파티를 진행합니다. 생일자를 파악하고, 롤링페이퍼 작성과 코팅, 생일파티 기획과 진행, 선물 준비 등 모든 과정을 학생들에게 맡기고 교사는 학생들이 요구하는 실무적인 어려움을 해결해주는 과정으로 진행됩니다.

• 대학탐방

일명 '벚꽃엔딩', '신촌 블루스', 남산에서 사랑을 외치다' 등 약간 말도 안되는 테마를 잡아서 진행했던 대학탐방을 학생들은 매우 좋아라 합니다. 학급 체험학습 또는 테마 학습으로 가능하겠지만 보통 주말에 시간 내서 갔습니다.

적당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1년에 한곳이라도 가면 학생들의 자기 객관화, 학습 욕구 상승, 세살을 보는 시야 확장에 좋습니다.

• 입학 100일 이벤트

학교에 플루터가 있을 테니 100일 축하용 1미터 플랜카드를 뽑아서 아침 일찍 칠판에 붙여줍니다. 단체 사진이 필요하기 때문에 입학식 또는 개학날 반드시 단체 사진을 찍어 놓고, 틈틈이 단체 사진 및 학생 개인별 사진도 찍어 놓는 게 좋습니다. 올해는 6월 9일 입니다.

• 학급 야영

학급 야영은 학교 관리자, 학부모, 학생의 상태에 따라 가부가 결정됩니다. 위 삼박자가 맞아 떨어질 때 진행한다면 교사나 학생들에게 평생 잊지 못한 추억이 됩니다. 물론 교사가 매우 피곤하고 힘듭니다. 그래서 주변에 함께 할 동료 교사가 있으면 좋겠지요.

• 학급 단합대회(라면파티, 삼겹살 파티 등등 이후 체육활동 또는 시청각실 노래방)

이 행사 학급 야영의 축소판으로 역사 학교 관리자의 상태에 따라 가부가 결정됩니다. 학교 가정실이나 교실에서 라면파티나 삼겹살 파티가 가능하면 학교에서 진행하고 저녁에는 체육실(강당)에서 학급 단합 체육활동 또는 시청각실에서 유튜브 MR를 틀고 노래방을 진행합니다.

학교에서 위 행사가 불가능하다면 그냥 삼겹살 무한리필 집을 가면 됩니다. 이때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학생이 있을 수 있으니 세심하게 살피고, 학교든 학교 밖이든 학생들의 학원 일정도 잘 챙기지 않으면 민원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 학기말 학교 구성원에게 감사 롤링페이퍼 쓰기

학기 말이 되면 수업 시간에 진도를 나가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이때 교과 담당 선생님(보건, 사서, 상담 선생님 포함), 학교 행정실 선생님, 학교 급식실 선생님, 청소 담당 선생님, 경비 담당 선생님 등(교장 교감은 선생님의 마음 가는대로,,,,ㅠㅠ) 학교의 모든 구성원 선생님들에게 감사의 롤링페이퍼를 작성합니다. 학생들의 학교생활은 학교에 있는 모든 구성원들의 노력으로 유지되기 때문에 그 취지를 잘 설명하고 학생들과 진행하고 나서 각 교과부장 또는 담당자를 정해서 롤링페이퍼를 전달하고 사진촬영도 하면 학교 구성원들이 매우 뿌듯해하며 감동받습니다.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았을 때는 감사한다는 표현을 할 줄 아는 학생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진행했습니다. 학생의 상태에 따라 롤링페이퍼의 질이 달라집니다.....ㅠㅠ

• 학생과 함께 준비하는 학부모 총회

학부모 총회는 담임교사들에게 가장 부담스러운 행사입니다. 학생들에게 미리 부모님께 듣고 싶은 말, 부모님께 듣고 싶지 않은 말 등을 포스트잇으로 조사합니다.(익명) 이 포스트잇을 칠판에 붙여 놓고 학부모 총회를 시작합니다.

몇 명이 오더라도 학급 운영 계획 PPT로 학급운영 발제하고(약 5분, 이때 개학날 나눠준 개학신문 제공), 서클로 앉아서 자기소개 및 학생들이 작성한 포스트잇을 보고 부모님들이 해주고 싶은 말을 포스트잇에 쓰게 하여 칠판에 붙입니다. 다음날 학생들이 칠판을 보며 부모님들의 마음을 볼수 있도록 합니다. 서로간의 소통을 위한 작은 행사입니다. 포스트잇 작성이 끝나면 아주 간단하게 서클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개별 상담을 하든 끝내든^^

• 각종 이벤트 참여하기

교과서 출판사별로 월마다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2000자 초과로 여기서 그만...

Q4.

교사 B	담임이면 피할 수 없는 담임 학생과 학부모님들... 선생님들께서는 **학생·학부모 상담을 어떻게 하셨나요?** 에피소드도 들려주세요.

♡ 역사교실 선생님들의 답변 ♡

내 용
• 플립카드 이용하여 상담 진행하니 아이들과 이야기꺼리가 많아지더이다. 학부모 상담은문제가 있는 학부모를 매우 귀찮게 했습니다. 나중에는 '이런 일까지 전화 하냐.' 는 식이었지만, 누군가 피해가 된다면 전 계속 문제제기하는 편입니다. 1일 1상담을 지향했으나 문제 있는 아이들과는 매일 상담하는 편이었습니다. (달래고 얼래고 소리 질러~~~!!) + 위클래스 상담샘께 연계 상담 부탁드렸습니다(저희 반 때문에 바빴다는...)
• 학기 초 성적인 문자사건 : 학폭은 안 갔지만, 두 아이 학부모 호출→가해학생 보건교사 성교육 3회 위클래스 상담실시.
• 여자아이들 단톡방 사건 : 여학생들 단체 면담 계속 실시~이야기하고 또 하고 울고 울리고 또 하고→그러면서 크더군요.
• 다양한 패드립 사건 : 적발 즉시 반성문+학부모 전화상담→2번 이상 적발 시 학부모 호출(정모군 엄마와는 거의 10번 이상 전화 및 방문요청)

• 교우관계 문제에 학부모가 개입하는 경우 마음을 어떻게 다스려야 할까요?
• 자신의 아이의 잘못은 인정하지 않고 학교에 책임을 전가하는 학부모님과 상담할 때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 1학년 때 학폭에 연루된 이후 2학년이 되어 큰 사고는 치지 않지만 잔잔하게 신경 쓰였던 학생이 있었습니다. 아이가 더 안 좋은 길로 빠질까봐 학부모의 불안도가 굉장히 높았고, 나쁜 친구들과 어울릴까봐 학원을 10시까지 다니게 하고 있었습니다. 10월 무렵 담배를 피우고 등교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공강 시간을 이용하여 학생과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학생은 10시까지 학원에서 공부하고 집에 와도 부모님이 싸우는 소리 때문에 잠도 못자고 쉴 수도 없다면서 힘들어 했습니다. 본인 때문에 부모님이 사이가 나빠지고 할머니, 할아버지와도 관계가 틀어지는 것 같아 마음이 괴로워서 담배를 다시 피우기 시작했다며 거의 2시간을 울었습니다. 상담 내용을 어머님께 알리고 학부모 상담도 진행했는데 어머님도 스트레스를 상당히 많이 받으신 상태인 것 같았습니다.(어머님도 우시더라고요ㅠㅠ) 어머님과 학생에게는 지금 성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가족과의 관계회복이 먼저인 것 같고, 현장체험학습을 쓰는 것도 좋을 것 같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가족여행 이후 학생은 안정을 되찾았고 3학년이 되며 학업 성적도 점차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이 상담을 통해 학생들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예민하고 복잡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말하고 행동하는 아이인 줄 알았는데, 교사로서 평소 언행에 더욱 주의하는 계기가 되었던 상담이었습니다.
• 저는 자주해요. 10분씩 짧게짧게, 한번하면 무조건 반 학생 모두 끝내고. 그리고 상담일지를 개인별로 써서, 전의 상담과 이어지도록, 너에게 관심이 많다는 걸 어필합니다.
• 상담 전 학생 정보에 대한 자료 조사와 가정환경을 조사
• 학생상담 : 학기 초 시간이 부족하니, 친한 친구들(2~3명)과 함께하는 집단상담 추천 • 학부모상담 : 요청이 있을 때 진행하는데, 먼저 자녀의 긍정적인 부분을 말하며 화목한 분위기를 조성한 후 본론으로 들어갈 것을 추천함.
• 학생 상담 (짧게 많이) 우선 3월엔 기초조사서를 바탕으로 학생 당 15분 정도 기초 상담을 하는데, 이때는 주로 가정환경, 생활 패턴, 건강 상태를 체크합니다. 그리고 작년 학교 생활 중 재미있었던 부분과 힘들었던 점, 같은 반 학생 중 껄끄러웠던 경험이 있던 친구가 누구인지를 물어보면 학생 파악에 도움이 많이 되더라구요. 최대한 밝은 분위기를 유지하며 빨리 친해지는 데 중점을 둡니다.^^ 학기 중에는 주로 희망자 위주 상담, 성적이 지나치게 낮은 학생들 위주로 짧은 상담을 진행하고, 주에 2~3번씩 점심시간에 교실에 들러 아이들 상태도 둘러보고, 이야기도 나누면서 지냅니다. 그러다 2학기 초에 다시 짧게 번호 순으로 모든 학생 상담 진행하구요, 3학년 경우에는 진로진학 상담을 1~2회 전체적으로 하면 1년이 지나가더라구요. • 학부모 상담 (긍정적인 이미지 만들기)

사실 제일 어려운 존재;;시잖아요. 좋으신 분들이 많지만, 사실 까다롭거나 힘든 분도 계신 것도 맞구요. 저는 일단 최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구요, '담임교사가 이만큼 신경 쓰고 있다.' 는 걸 티내는 스타일입니다. 짧은 경험이지만, 학부모님께서 '담임이 내 아이를, 학급을 많이 신경 쓰고 있구나.' 를 느끼시면 담임교사를 호의적으로 대해주시더라구요.^^ 학부모 총회 자료 꼼꼼히 만들기(학년 별 학부모님들이 원하는 니즈에 맞춰서), 분기 별로 학부모 편지 쓰기, 학부모 전체 메세지(중요 공지, 시험 전/후, 방학, 학교나 학급 행사 전) 자주 보내기 등 간단한 방법들이지만 쌓이다보면 큰 힘이 되는 것 같아요.
• 초임 때 학부모님 중에 외국인 어머님이 계셨는데, 남편과 이혼 하시고 친구도 없어서 그런지 학교에 자주 방문하시고 밤에도 전화해서 학생 상담인척 하시면서 결론은 본인 대화를 하시더라고요. 처음에는 네네 하고 다 받아주고 매우 힘들었는데, 점차 일하는 척? 밤에는 학생 얘기만 하고 딱 끊도록 유도하고 그랬습니다.
• 기초조사자료 정도만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번에 긴 시간 상담보다는, 주기적으로 짧게 여러 번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 사람들은 남의 이야기를 듣는 것보다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합니다. 학생, 학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사를 듣는 역할을 주로 하고 상대방이 말을 꺼낼 수 있도록 적절한 질문을 중간 중간 하면 됩니다. 3월에 아무리 바쁘더라도 제가 우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모든 부모님께 전화를 걸어 "00와 관련해 제가 알면 도움이 될 만한(학습, 건강 등) 내용을 말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 아이들을 빨리 알아갈 수 있고, 학부모와도 좋은 관계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 학기 초에 나가는 학부모 편지 준비. • 특별히 어려웠던 상담은 없었습니다. 정말 어려운 아이들의 부모님은 연락을 안받으시더라구요. ㅎㅎ • 딱히 상담으로 듣고 싶은 이야기는 없지만 (이래서 아이들과 안 친해지나 봅니다.) 학부모 밴드를 개설하여 아이들의 학교생활 모습을 자주 게시했습니다. 글 쓰는 권한은 저만 있고요 ㅎㅎ 부모님들의 반응은 아주 좋았습니다.
• 지도를 관심 있게 하고 있는 아이가 점점 더 의미 있는 변화를 겪어나가고 있는 도중에 수학선생님에게 폭언하는 일이 일어남. 어떻게 지도해야할지 몰라 빤히 쳐다보니까 아이가 눈물이 터져 고개를 숙이는 상황이 되었음. 반성문 종이를 두 장 뽑아 아이와 내가 한 장씩 나눠 가지면서 너의 담임으로 샘도 책임이 있다고 말한 뒤 아이와 함께 수학 선생님에게 반성문을 같이 작성하기 시작함. 완성된 반성문을 아이 편에 줘 보내 지도를 마무리 하였고 아이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었던 것 같음
• 학생 정기 상담 : 이전 학기 성적 활용한 성적 상담(엑셀 프로그램 이용), 생활 및 적응 상담(질문지 뽑아 상담하면 좋음) • 학부모 상담 : 자녀와의 관계 또는 소통에 관한 책 추천했을 때 반응이 좋았음, 고등학교 진학에 대한 상담

• 개인상담 : 학기 중 2회씩 실시

지속적인 상담이야말로 교사와 학생의 긍정적인 관계 형성에 가장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학기 초에는 가벼운 이야기, 선생님이 알아두었으면 하는 이야기, 현재 고민 위주로 많이 들어주고, 이후에는 공부 및 성적, 진로 상담 위주로 필요한 조언을 많이 해주었습니다.

• 집단상담

학기말 또는 방학동안 원하는 친구들 위주로 10명을 선발하여 학교 밖으로 나들이 가는 시간을 갖습니다. 선별 기준을 따로 두진 않지만 학급 친구들에게는 인기가 많진 않지만 교사와 친근한 관계를 가지고 싶어 하는 학생들과 교육 소외 계층의 아이들 위주로 데려갑니다. 대신 선별기준이 절대 티가 나면 안 되고, 자연스러워야 합니다. 영화도 보고 떡볶이도 만들어 먹으면서 우리 반만의 추억을 공유합니다. 이렇게 레포가 형성되면 상담할 때 더 진실 되고, 평소 하기 힘들었던 이야기를 털어놓는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 학부모상담

학부모 상담을 하기 전에는 미리 해당학생과 짧게라도 상담을 하는게 좋습니다. 진로에 대한 고민, 교우관계에 대한 고민 등의 정보를 미리 알아두면 상담하는데 말문이 막히게 되는 현상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담당선생님께 도움을 요청하여 미리 진학정보를 알아두는 것도 중요합니다.

• 상담사례

가정형편이 어렵지만 학습의욕이 높은 자녀를 가진 학부모님이 학교를 방문하셔서 상담한 사례가 기억에 남습니다. 많은 말을 하기보다는 어머님 말씀을 많이 들어드리고 학생에 대한 단점보다는 칭찬을 위주로 말씀드렸더니 결국 눈물을 보이시더라구요. 이런 말은 처음 들어본다면서 감사하다고. 가능하면 어머님께 희망을 드리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 학부모 상담에서 가장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 첫 상담에서는 학생들이 작성해 놓은 기초자료를 중심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사실 아직도 좀 어려운 부분이긴 한데 학생들과의 친밀감을 더 높이기 위해서 어떤 주제로 이야기를 하면 좋을지 고민이 많이 됩니다. 1학기 학부모 상담의 경우 학생들이 작성했던 기초자료, 가족관계도, 진로시간에 했던 spq(사회성인성) 검사를 토대로 했었고, 2학기에는 1학기말 성적, 작년 고입 결과(화성오산은 비평준화지역)를 추가해서 활용했습니다. 올해는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옮겨서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어떻게 상담해야 될 지, 중학교 때 하던 방식을 활용할 수 있을지 고민이 됩니다.

• 첫날 아이들에게 몇 가지 질문이 담긴 용지와 편지봉투를 줍니다. 그리고 집에서 정성스레 적게 하고 1주일 뒤에 받습니다. 질문내용은 장단점, 가장 행복했던 기억, 가장 힘들었던 기억, 선생님께 꼭 하고 싶은 말, 건강과 경제적 사정 등이 담겨있습니다. 편지봉투와 주고 정성스레 적으라고 하는 이유는 그만큼 둘만의 비밀공유라는 점에서이며, 아이들이 생각보다 열심히 적어오는 편이라 학생상담이나 파악 시에 유익합니다.

• 학부모님들께는 마찬가지로 첫날 편지를 보낼 때 질문이 담긴 용지와 편지봉투를 동봉해서 보내드립니다. 질문의 내용에는 아이에 대해서 선생님이 꼭 알아야 하는 점, 부모님이 바라는 학생의 진로 희망, 학생에 대한 TMI정보 등을 적어서 학교로 보내주시면 마찬가지로 상담과 학생파악에 참고를 합니다. 모든

학부모님들이 보내주시지는 않지만 반응도 좋고 아이들 파악에 용이합니다.
• 학생의 꿈, 가정환경 상황 고려
• 진로상담이 특히 어려워요 다양한 진로사례나 주변고등학교현황을 잘 파악해야할 것 같아요. ㅠㅠ • 평소에 시시콜콜한 일상을 나이스 누가기록에 수시로 남기는 습관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아이 상담이나 학부모상담에 좋을듯해요
• 학생, 학부모님과 상담할 때 활용하면 좋은 것 '감정카드' 1. 요즘 또는 현재 내가 느끼고 있는 감정에 대해 3가지 고르기 2. 왜 그런 감정을 느끼는지 이야기하기 3. 자신이 앞으로 느끼고 싶은 감정에 대해 3가지 고르기 4. 자신이 무엇을 해야 앞으로 그런 감정을 느낄지 같이 고민해보기
• 상담은 하면 할수록 어렵다고 느끼고 있습니다만, 가급적 말을 하기보다는 질문을 하고 많은 이야기들을 들으려고 합니다. 학생상담의 경우는 남학생과 상담할 때와 여학생을 상담할 때의 태도를 다르게 하는 편입니다. 남학생들에게는 믿음을 보여주어서 아이들이 스스로 학교생활을 잘 해낼 수 있도록 하고, 여학생들에게는 평소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다는 인상을 심어주기 위해 노력합니다. 학생의 장점, 고민이나 어려움 등을 세세하게 이야기하려 노력합니다. 학부모님들 같은 경우 상담을 하시기 전에 준비하셨던 질문, 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가급적 모두 하실 수 있게 편안한 분위기, 허용적 분위기 조성에 노력하는 편입니다.
• 학생과의 상담은 운동장 산책하며 진행했었는데 효과가 좋았다. • 학폭 관련 사례가 터질시 웬만하면 그 날 해결을 보는 것이 좋다. 학부모를 직접 학교로 불러서 감정의 골이 깊어지기 전에 좋은 쪽으로 마무리 짓기 등등. 또한 무조건적으로 좋은 이야기만 하기보다는 ' 아이를 위해서 드리는 말씀'을 명분으로 쓴 소리를 해야 할 순간을 잘 잡아야한다. • 상담 전에 고카페인 커피를 마시거나 영양제를 먹고 임하는 것이 심신에 좋다. 전투에 임하는 전사의 심정으로 대화 주도권의 깃발을 손에 쥐어야 한다. 진심을 가지고, 여유롭게 미소를 잊지 말자. 그리고 사전에 초근결재는 필수이다.
• 어떤 고민이 있는지(친구문제나 진로문제 부모님과의 친밀도 등등이요)
• 상담 기록에 대한 노하우를 나누고 싶어요~
• 학생과 학부모 기초 설문자료 활용 학기 초에 작성한 설문조사는 매우 유용하게 활용 할수 있습니다.

• 개별 상담과 집단 상담

상담은 보통 학생과 일대일로 진행하지만 집단 상담이 가능한 학생은 모아서 집단상담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시간은 없고 가벼운 주제를 이야기 할 때, 그냥 아이들과 더 친해지고 싶을 때 유용합니다.

• 점심 산책 상담과 아침 상담

'우리 같이 걸을까?' 점심 산책 상담과 '아침에 차 한 잔' 아침 상담은 집단 상담이 유리합니다. 점심 산책 상담은 봄가을, 아침 상담은 일 년 중 언제나 가능합니다. 학생들은 점심 산책 상담을 아주 좋아합니다. 아침 상담은 학교에 일찍 오는 학생들을 중심으로 진행하면 좋습니다. 교사가 일찍 오지 않으면 점심 산책만 하는 걸로...

• 특별히 어려웠던 상담

신규 시절에는 학생과 학부모의 어려움을 모두 해결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특히 특정 학생을 신경쓰다보면 나머지 학생을 놓칠 때가 많이 생깁니다. 그러다보면 자연스럽게 학급 운영에 문제가 생기고 교사 역시 괴로워집니다.

교사가 책임질 수 있는 영역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구분하기 어려운 지점도 있지만 학교에서 책임지고 지도할 부분과 가정에서 책임지고 지도할 부분을 명확히 해야 교사가 괴롭지 않습니다. 가정의 영역을 교사가 책임지려고 하고 해결하려고 하면 서로 힘들어집니다. 이런 부분은 주변 동료 교사, 선배교사에게 조언을 구하면서 진행하시는 게 좋을 듯합니다.

Q5.

교사 A&B	학급을 운영하다보면 예상치 못한 사건 사고가 많이 일어납니다. 미리 예측할 수도 없고..ㅠㅠ **선생님들의 고민, 겪으셨던 문제 상황과 대처법**을 듣고 싶습니다.

♡ 역사교실 선생님들의 답변 ♡

내 용
• 1일 1상담을 진행하면 좋고 싫고 간에 학생들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됩니다. 전 문제 상황 발견 시 즉시 빠르게 소집&상담했습니다. 학교차원의 징계까지는 안 갔지만, 부장님과 연계하여 청소시켰습니다. 과하다 싶게 하면 아이들이 무슨 일만 생겨도 저에게.. 힘들었지만 그 아이들에겐 세상 큰 고통이니 인내했던 것 같습니다.
• 나보다 성적이 낮은 친구를 비난하면서 나의 자존감을 찾는 학생인데, 이 학생의 영향력이 커서 교실의 분위기가 변하는 경우. 담임이 어떤 방법을 써야 서로의 약한 부분을 공격하지 않는 교실이 될 수

있을까요?
• 아이들과 규칙의 선을 잘 정하는 것도 좋지만, 너무 많은 규칙으로 통제하면 아이도 교사도 피곤해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에게 규칙의 선을 맡겨두면 너무 느슨해질 수 있으니 회의 과정에서 교사가 적절하게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 학생들 간의 갈등, 어떻게 해결하시나요? • 다른 친구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는 학생, 어떻게 하시나요?
• 하아, 공공의적인 학생 한명도, 우리라고 생각할 수 있게 만드는 방법이 너무 궁금합니다.
• 담임교사와의 마찰 보다는 타 교과 선생님들과 융합이 어려울 때가 힘들었음.
• 1인1역할 제대로 운영하는 방안 알고 싶습니다. 나중엔 흐지부지 되서 잘 안되더라구요. • 여학생들의 세력다툼? 해결 방안 같이 어울리다가 한명이 떨어져 나갈 때 해결 방안 등 이야기 나누고 싶습니다. 이번에는 아이들끼리 얘기 나눌 수 있도록 시간을 주고(저도 함께 합석했지만 이야기는 많이 안했어요.) 며칠을 얘기하면서 간신히 잘 해결이 됐지만 어렵네요.
• 혼자 힘든 상황을 떠앉기보다는 주변 동료교사들의 조언과 상담을 많이 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 큰 사건의 경우엔 절대로 혼자 끙끙 앓지 않기. 주변 선생님들&학년 부장 선생님과 논의해서 집단 지성의 힘으로 극복. • 양쪽 입장을 모두 듣고, 관련 있는 제3자의 의견도 들어보며 공정하게 처리하기. 재발 방지까지 확실하게.
• 가장 힘들었던 건 학급에 한 여학생이 있었는데, 정말 제 인생 최고의 비행청소년이었습니다. 4월에 교무실에서 욕을 한 것을 시작으로 매번 불량한 태도로 대하고, 핸드폰을 안 가져왔다고 거짓말 하고 등등 매우 문제 행동을 보였습니다. 매우 힘들었는데, 원래 화내는 성격이 아니라 항상 웃으면서 욕 받아주고, 좋은 얘기만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학생은 변하지 않아도 주위 친구들이 담임선생님께 그러지 말라, 담임선생님 욕하지 말라 등등 오히려 제 편이 되어주더라고요. 덕분에 교실 내에서는 문제행동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 학교생활에 대해 의미를 찾지 못하는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이후 종종 자신의 심리 혹은 감정 상태를 밖으로 표출하여 다른 학급구성원들에게도 영향을 끼치기도 했습니다. 아직 적합한 해결방법은 찾지 못했습니다.ㅜㅠ
• 문제나 갈등은 언제나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갈등이 생길까 두려워하고 초조해하기보다는 있는 현

상을 그대로 이해하고, 적절한 해결 방법을 찾아나가려고 합니다. 문제를 해결할 때는 문제의 종류에 따라 반 아이들과, 학부모와, 교사들과 해결할 때가 다릅니다. 각 상황에 맞춰 누구와 함께 문제를 해결할 것인지 결정해야 합니다. 저는 주로 학급회의에서 반 아이들에게 문제를 함께 해결하자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아이들 간의 갈등이 제일 힘든 것 같습니다. (특히 중딩 여학생들) 대처를 잘 하지 못해 1년 내내 힘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 주변 선생님들 (해결 방안)
• 작년 3월 말 쯤, 휴대폰 미제출한 아이가 걸렸을 때, 안내는 친구들이 많다는 제보를 받고(공기계 내는 아이들이 상당수 있었음) 빈종이 한 장씩 주고, 휴대폰 제출을 안 한 사람은 솔직하게 쓰도록 했고, 안내는 친구를 쓰도록 했음. 이 때를 계기로 졸업까지 휴대폰을 안내는 아이들이 없었음. • 축제 준비(반별 댄스) 때문에 학급이 두 동강 난 적이 있었음. 결국 두 동강 난 채로 졸업함.ㅜㅜ
• 아무래도 가정에서 많은 보호를 받지 못하거나 학교생활에 부적응을 겪는 학생들에 대한 대처가 가장 어려운 것 같습니다. 학교가 싫어서 자주 결석을 하고 가정에서는 이러한 학생의 문제 행동을 통제하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담임으로서 가장 중요한 역할은 지속적인 상담과 관심이라고 생각합니다. 학생이 결석을 하더라도 매일 전화나 문자를 해서 늘 너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표현하였습니다. 그밖에도 전문 상담 선생님께 도움 요청, 위기관리 위원회 개최로 여러 선생님께 문제 상황 알리기, 학업숙려제 숙지 후 상담, 가정 방문 등의 노력을 했습니다. 당장은 아니더라도 아이들이 담임이 자기를 위해 노력한다고 생각해서 그런지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더라구요. 반항적이던 친구들도 담임이 하는 말은 가만히 듣기라도 하고, 늦게라도 학교에 오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만으로도 고마웠습니다. 아이를 한 번에 변화시키고자 하는 욕심과 기대를 내려놓고 조금씩 나아지는 모습을 보겠다는 마음으로 관심을 주면 선생님 마음도 조금 편해집니다.
• 학급 내에서 물건을 망가뜨리거나 없어지는 등 사건이 발생했을 때 자신이 했다고 이야기하는 학생이 없고 목격자도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요? • 작년에 한 남학생이 과학 선생님께 3분 카레를 선물로 받았는데 동아리 활동을 하고 중간에 학급에 돌아오니 누군가 3분 카레를 뜯어서 그 남학생 책상 위에 부어 놓은 일이 발생했습니다. 주변의 학생들에게 물어보고 학급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지만, 자신이 했다고 나서는 학생도 없고 카레를 붓는 장면을 목격한 학생도 없었습니다. 정황상 남학생의 짝꿍이 의심이 되었지만 짝꿍은 카레를 붓는 일과 자신은 관련이 없다고 말하였습니다. 결국 누구인지 찾지 못하고 그대로 마무리 되었습니다. 다행히 남학생 학부모님이 심각하게 여기지 않고 남학생들 간의 장난으로 이해해주셔서 지나갔지만 다음에 혹시 이런 일이 생긴다면 어떻게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을지 고민됩니다.
• 학교폭력, 은따문제

• 차근차근 아이를 이해하고 존중하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계속 거짓말하다가 옆에서 딱 윽박지르는 선생님 한마디에 사실을 말할 때 무기력해졌음. • 공부 잘하고 논리적으로 말 잘하는 아이가 약한 아이에게 군림하려고해 불러다 얘기하는데 지적 받는 것에 익숙지 않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다가 결국 잘못했다고 말은 하면서 눈빛과 얼굴은 완전 사람 무시하는 태도일 때 더 이상 지도의욕이 안 생김.
• 지능과 사회성이 부족한 학생의 돌발적 행동과 그 학생들의 티 나는 따돌림과 놀림. 1. 돌발적 행동을 하는 학생과 심층 상담. ① 자신이 그런 행동을 하는 이유 ② 앞으로 그러한 행동을 하고 싶을 때 어떻게 해야하는지 구체적으로 가르쳐줌. 2. 다른 학급 친구들과 심층 상담. 3. 학급 학생들에게 배려 당부 ① 회장, 부회장 및 사교성 좋은 학생들에게 많이 챙겨달라고 부탁하고, 항상 격려. ☞ "니 덕분에 OO이가 좀 나아진 것 같다." ② 그 학생을 놀리거나 부딪치는 학생에게 그러지 말라고 당부. ☞ "OO이의 행동이 신경 쓰이겠지만 그런 일을 할 때마다 니가 부딪히지 말고 담임에게 와서 꼭 얘기해라."
• 여학생들 사이에 발생했던 문제들과 그로 인한 갈등상황이 어려웠습니다. 이성적으로 대화를 해도 여학생들의 문제는 감성적인 부분에서 풀리지 않으면 해결이 되지 않는 것 같아서. • 학생들과 많이 이야기를 나누고 해결을 위한 노력을 해도 아이들 사이에 감정들이 해소되지 않으면 문제가 전혀 해결되지 않았던 경험을 하였습니다.
• 학생들이 전반적으로 자존감도 낮고 공감능력이 부족하며 무기력하다. 학습된 무기력으로 공부에 대한 당위성도 매우 부족하고.. 학교 예산이 넘쳐 소위 복에 겨운 줄 모르는 모습도 많이 보인다. 이런 학생들을 끌고 으쌰으쌰를 외치는 나 자신이 너무 외로웠었다.
• 지속적인 흡연이나 지각하는 학생에 대한 지도 노하우 알고 싶어요.
• 기록이 중요하더라구요.ㅠ

Q6.

교사 A&B 친절하고 유익한 답변들 감사합니다. :) 마지막으로 **선생님만의 학급 운영 꿀팁**이 있다면 소개해주세요.

♡ 역사교실 선생님들의 답변 ♡

내 용
• 1인 1역에서 무조건 보안부장 됐습니다. 귀중품 현금을 담임에게 맡기는 제도입니다. '안 맡긴 현금은 잃어버려도 할 말 없다. 나라도 돈 있음 훔쳐간다.' 깨진 유리창 이론 설명하면서 학급 내 도난에 신경 썼습니다. • 학급문고에 담임 추천도서 구비 및 독서기록장 쓰고 제출학생에게 학급복권 지급.
• 꿀팁... 저도 알고 싶어여... 학급운영 넘나 어려운 것ㅠㅠ 아, 저는 듀얼 넘버 서비스 이용하면서 학생들만을 위한 카톡 계정을 따로 쓰고 있어요. 학급 단톡방 이용해서 공지사항을 상기시켜주거나 제가 까먹은 것들을 카톡으로 보내두기도 해요. 근데 카톡을 안 쓰는 학생도 있고, 데이터 부족해서 확인 못하는 경우도 많더라구요.
• 한결같은 지속성이 있어야, 학생들이 공평하다고 느끼는 것 같습니다.
• 진심으로 대하기.
• 조회시간에 그림책 읽어주기(1주일 또는 2주일 한번), 읽어준 그림책을 자유롭게 읽을 수 있도록 1-2주 동안 교실에 놓기(망가지면 마음 찢어짐 ㅠㅠ)
• 내가 즐거운 활동 하나를 끝까지 하기. 여러 가지 학급 운영의 기법들이 있지만, 모든 걸 하다보면 힘에 부치더라구요. 그리고 개개인의 성향에 맞는 활동이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선생님 성향에 맞는 활동 하나만 해도 그 하나를 12월까지 꾸준히 하면 충분히 성공입니다.^^ • 시그니처 활동 만들기 다른 학급이 하지 않는, 우리 반만 하는 활동/행사가 아이들에게 소속감과 자부심을 높여주더라구요. 당장 없더라도 주변 선생님들이나 여러 스타 선생님들, 연구회 선생님들의 학급 운영을 보면서 많이 배우고, 다음 해에 적용해보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저는 3가지 정도 늘 하고 있는데, 주 1회 학급 소식지 발행(학생들과 함께), 생일 캘리그라피 카드 써주기(취미가 캘리그라피^^), 명예의 전당 운영(교내상, 1달에 1번 투표로 이 달의 몇 반인 선정, 학급 상장 코팅 후 교실에 붙이기) 등이 반응이 좋았어요.

• 되도록이면 학급 원들이 보고 있는데 혼내지 않고, 학생들이 교무실을 되게 부담스러워 해서 단호히 혼낼 상황이어도 교무실 외로 불러서 상담을 하니 학생들도 자기를 생각해 주는구나 생각이 든다고 하면서 신뢰가 많이 형성되었습니다.
• 꿀팁... 주기적인 세뇌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ㅎㅎ 나는 다른 담임과 다르다. 우리 반은 다른 반과는 다르다. 너희는 선택받았다. 그러니 나한테 잘해라, 담임 이렇게 노력하고 있다. 이런 식?!
• 규칙은 필요할 때만 만듭니다. 3월에 학급 규칙을 정해버리면 서로 모르는 상황에서 행동을 구속하는 불편한 규칙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자유롭게 생활하면서 다른 사람을 배려해야 하는 상황이 생기면 학급회의를 통해 관련된 규칙을 만듭니다. 즉 필요가 생길 때 규칙을 만듭니다. 우리가 만든 규칙이라도 잘 되지 않으면 언제든지 바꿀 수도 있어야 합니다. 물론 그 과정은 민주적인 합의가 전제 되어야 합니다.
• 꿀팁은 아닙니다만 아침조회시간에 할 게 없어서 노트에 명언을 쓰고 느낀 점을 쓰게 했습니다. 꾸준히 했더니 아이들이 명언쓰기를 생각보다 좋아한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올해도 해볼 생각입니다.
• 서로를 쳐다보게 하지 말고 같이 멀리 보게 하는 것.
• 계절 사진과 포토 앨범 제작은 아이들에게 좋은 선물이 되는 것 같음. 1인 1역에 포토그래퍼를 두어 사진을 정리하도록 하여 학기말 때 정리된 사진만 담임에게 줄 수 있도록 해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음. 그 아이에게 포토앨범 제작을 맡겨도 좋을 듯,,,? • 우리 반은 특별하다는 생각을 갖도록 이벤트를 한두 번 하면 아이들의 소속감이 높아짐. • 학부모 단톡방 활용. 단톡에 학교의 중요한 일정 등을 안내하거나 축제, 체육대회 등 큰 행사 사진 올려드림. 부모님의 호응이 좋으며 신뢰도가 높아짐.
• 우연히 학력향상계 업무를 담당하시는 선생님에 의해서 경기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에서 기획하는 경기희망교실 운영 공문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기초수급대상자, 한 부모 가정, 학습 부진, 학교생활부적응 학생 등을 대상으로 하는 사제동행 멘토링 사업으로 운영 계획서를 써서 신청하여 선발이 되면 50만원의 예산을 학교를 통해 배정해주는 사업입니다. 이 예산을 통해 학급 스터디 그룹 운영, 사제동행 문화체험, 정서상담에 질을 높일 수 있었습니다.
• 우리 반이 사랑받고 있다는 생각이 들게끔 하면 아이들은 선생님을 믿고 따라온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반의 시기와 질투와 부러움을 사고 있다면 그건 성공한 학급운영이라 생각합니다.
• 첫 시간에 교사의 의지와 생각을 피력해야 합니다. 우리 반은 어떤 반이 되었으면 좋겠다. 다소 오글거릴 수 있는 이야기지만, 학생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를 꼭 했습니다. 그리고 이날 얘기했던 얘기는 반에서 갈등이 생기거나, 소외당하는 학생이 생길 때마다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 했고, 좋은 학급으로 한해를 마무리 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첫날 이런 이야기를 학생들에게 했습니다.

반 전체가 무조건 친하게 지내자. 누군가를 배척하거나 무시하는 행동은 어린 초등학생들이 하는 행동이고 상당히 모자라고 어리석은 행동이다. 그러지 말자. 친하게 지내기 힘든 친구가 있더라도 친한 척이라도 하자. 사소한 거라도 같이 하자고 하자. 혼자하고 있는 친구가 있으면 손을 내밀어주자. 1년이란 시간 길다. 30살이 겪는 1년보다 10대 중반인 너희가 겪는 1년이 훨씬 값지고 소중하다. 1년을 되돌아 봤을 때 모두가 좋은 추억을 쌓고 '아 우리 2반 좋은 반이었어. 즐거웠어.' 할 수 있도록 서로 친해지도록 노력하자.

서로 갈등과 다툼했다고 꽁해있지 말고, 이해하고 풀고 사과하자. 한 공간에서 1년 동안 지내다 보면 싸우고 다투고 갈등하는 경우가 생긴다. 평생을 살아도 그런 경우가 생긴다. 그럴 때마다 사람들 버리고 배척하고 등진다면 자기만 손해 보는 짓이다. 갈등과 다툼에 대해 두려워하지 말고, 부모를 죽인 원수가 아닌 이상 최대한 이해하고 풀고 사과하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실천하고, 배워간다면 그냥 추억만 쌓는 게 아니라 더 좋은 어른, 좋은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을 거다.

- 종례비서 활용, 욕할 경우 꽃 편지&꽃 시 써오기, 철저한 신상필벌, 명령하달과 복종

- 자율성을 주기

- 선생님 하고 싶은 것, 할수 있는 것을 하세요. 선생님들 곁에는 역사교실이 있습니다.^^

총괄 ‖ 경기역사교육실천연구회
기획 및 편집 ‖ 경기역사교육실천연구회 연구부
발행일 ‖ 2020년 2월 22일

Copyright © 2020 All rights reserved by 경기역사교육실천연구회
본 자료의 저작권은 경기역사교육실천연구회 및 참여 선생님들에게 있습니다.